곡성군청 김현미 아시아볼링선수권 5인조 '금'

싱가포르 누르고 팀전서 우승
한국에 세번째 금메달 안겨
광양시청 김동현 남자 5인조 동

김현미(곡성군청)를 비롯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26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여자 5인조 팀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17일 대한볼링협회에 따르면 전날 홍콩 SCAA 볼링경기장에서 치러진 대회에서 여자 5인조 팀이 전·후반 블록(개인당 3경기) 총합 7177점을 획득, 싱가포르(7097점)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현미를 비롯해 백승자, 김진주(이상 구미시청), 황연주, 양수진(이상 횡성군청), 정다운(대전광역시청) 등 교대 인원까지 총 6명이 팀전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김현미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순위 1위(최종합계 1만1274점·에버리지 234.9)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그는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볼링 여자 6인조 금메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여자 5인조팀이 금메달을 추가해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세 개를 따냈다.

앞서 남자 개인전에서 김동현(광양시청), 여자 2인조 부문에서 백승자·정다운이 금메달을 챙겼다.

김동현을 비롯해 박건하, 이익규(광주시청), 길준성(부산광역시청), 박동혁(한국체대)으로 꾸려진 남자 5인조 팀은 동메달을 땄다.

현재 대표팀은 금메달 3개 외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한 상태다.

지난 8일부터 열린 대회에 출전한 대표팀은 이제 마스터스 종목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표팀은 18일까지 예정된 대회 일정을 마친 후 19일 귀국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지난 16일 홍콩 SCAA볼링경기장에서 치러진 제26회 아시아볼링선수권대회 여자 5인조 팀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팀. 왼쪽에서 세번째가 곡성군청 김현미. /연합뉴스

김시우

김시우, 설 연휴 우승 선물할까

PGA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9일 개막…2주 연속 우승 도전

김시우(28)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5승과 2주 연속 우승을 정조준한다.

김시우는 19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열리는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800만 달러)에 출전한다.

16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끝난 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우승한 김시우는 상승세를 이어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김시우가 2021년에 정상에 올랐던 대회여서 상위권 입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김시우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는 공동 11위에 올랐다.

김시우가 우승할 경우 한국 선수로는 8승의 최경주(53)에 이어 두 번째로 PGA 투어 5승 고지를 밟는다.

김시우로서는 토끼해인 계묘년 설 연휴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통산 5승, 2주 연속 우승, 2년 만에 패권 탈환 등 세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서는 셈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올린 오지현(27)과 결혼한 김시우는 이번 대회에서도 아내의 응원을 받으며 '결혼 후 승률 100%'를 이어갈 태세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3라운드를 3개의 코스를 돌며 치른 후 4라운드 진출자를 가려내고, 최종 라운드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파72·7187야드)와 라킨타CC(파72·7060야드), PGA 웨스트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파72·7147야드)에서 1~3라운드가 열리고,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에서 마지막 4라운드를 통해 우승자를 정한다.

또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를 동반해 경기하는 프로암 형식의 대회라는 점이 특색이다.

이 대회와 AT&T 페블비치 프로암이 프로와 아마추어가 대회를 같이 치르는 방식의 PGA 투어 대회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스코티 셰플러(2위·미국), 욘 람(4위·스페인), 패트릭 캔틀레이(5위), 잰더 쇼플리(6위), 윌 잴러토리스(7위·이상 미국) 등 5명이 출전한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김시우 외에 임성재(25), 김주형(21), 이경훈(32), 안병훈(32), 강성훈(36), 김성현(25) 등 7명이 설 연휴 기간 한국 팬들에게 '우승 선물'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노승열(32)은 대기 선수 명단에 있어 출전 선수 가운데 결원이 생기면 대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도 당구와 함께…웰뱅 챔피언십 개막

2022-2023시즌 프로당구 PBA 7번째 투어가 막을 올린다.

프로당구협회는 17일 "오늘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방송센터에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LPBA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8개 정규투어 가운데 7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 열린다.

지난 시즌 이 대회에서는 프레데리크 쿠드롱(웰컴저축은행)과 임정숙(크라운해태)이 정상에 오른 바 있다.

17일 여자부인 LPBA 128강부터 시작하는 이번 대회는 24일 밤 남자부 PBA 결승으로 막을 내린다.

또한 이번 대회부터 차기 시즌 1부 잔류를 위한 막판 경쟁이 시작된다.

PBA는 매 시즌 종료 이후 포인트랭킹 기준 상위 64위까지 잔류하고, 나머지 선수는 1부 투어 선발전인 큐스쿨로 강등된다.

상금랭킹 기준 상위 32명은 왕중왕전인 PBA 월드챔피언십에 직행한다.

18일 예정된 PBA 128강 첫날에는 다비드 사파타(블루원리조트)를 비롯해 다비드 마르티네스(크라운해태), 강동궁(SK렌터카), 조재호(NH농협카드), 비롤 위마즈(튀르키예), 서현민(웰컴저축은행)이 출격한다.

19일에는 당구선수 겸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인 김현석이 와일드카드로 PBA투어 데뷔전을 치른다.

데뷔전 상대는 '당구 황제' 쿠드롱이다.

김현석은 "당구 선수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 출전을 선택했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LPBA는 최근 5개 대회 성적을 합산해 랭킹에 따라 1위부터 32위까지는 64강에 직행하고, 나머지는 128강부터 대회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17일부터 24일까지열리는 2022-23시즌 7번째 투어 '웰컴저축은행 웰뱅 PBA-LPBA 챔피언십' 대회를 앞두고 쿠드롱 등 선수들이 미리 명절 음식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오픈 첫판 탈락 권순우

"체력 부담은 핑계 실력에서 졌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탈락한 권순우(52위·당진시청)가 "체력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핑계 대고 싶지 않다"며 "실력에서 졌다"고 패배를 받아들였다.

권순우는 1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대회 첫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크리스토퍼 유뱅크스(116위·미국)에게 2-3(3-6 7-6〈7-1〉 3-6 6-4 4-6)으로 졌다.

이틀 전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끝난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 우승, 호주오픈 전망을 밝게 했던 권순우는 하위 랭커인 유뱅크스에 덜미를 잡혔다.

키 201㎝ 장신인 유뱅크스에게 서브 에이스에서 10-42로 크게 밀렸다.

권순우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며 "상대가 잘한 경기"라고 말했다.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 2차 대회를 연달아 치르며 체력을 소진한 그는 "체력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오늘 경기는 괜찮았다"며 "핑계 대고 싶지 않고, 실력에서 졌다"고 패배를 시인했다.

그는 "상대는 부담 없이 경기한 것 같다"며 "서브나 스트로크에서도 내가 밀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첫 서브가 잘 안 들어가 끌려갔다"며 "상대가 세컨드 서브 공략을 잘했다"고 서브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15번 코트에서 경기한 그는 현지 교민 등 많은 팬의 응원을 받았으나 끝내 5세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에서 파블로 카레뇨 부스타(15위),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굿(25위·이상 스페인) 등 톱 랭커들을 물리치며 분전한 권순우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에서는 100위권 밖의 선수에게 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애들레이드 대회 정상에 올라 한국인 최초 ATP 투어 단식 2회 우승을 달성한 권순우는 2023시즌 50위권 이내 진입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남은 시즌 일정에 임하게 됐다.

한편 권순우는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복식 출전을 포기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권순우가 햄스트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에 따라 복식 출전을 포기하고, 18일 오전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프로배구 올스타전 티켓 19일 오후 1시 예매 시작

프로배구 도드람 V리그 올스타전 티켓 판매가 오는 19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올스타전은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통합 티켓 판매처(www.vticket.co.kr)를 통해 온라인 예매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사람당 최대 6매까지 살 수 있고 미판매 좌석은 현장 구매가 가능하다.

1·2층 지정석은 구역에 따라 2만~5만원에 판매된다. 비지정석은 1만5천원이다.

선수들을 가까이 볼 수 있는 플로어석은 15만원, 최대 10명이 수용 가능한 3층 스카이박스는 70만원이다.

올스타전 전날인 28일에 열리는 '프리 올스타 게임'(Pre-All Star Game) 행사는 18일 오후 1시부터 예매할 수 있다.

프리 올스타 게임에선 남녀부 스파이크 킹·퀸 콘테스트 예선전, 세리머니 콘테스트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교섭
2관	아바타: 물의 길
3관	영웅
4관	교섭
5관	유령
6관	유령
9관	교섭,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캐리와 슈퍼콜라
7관 씨네커플	라일 라일 크로커다일,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8관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스위치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1-18(수) ~ 2023-01-29(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신년음악회
일시 : 2023-02-03(금)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